

예시답안

논제 I

오늘날의 인류사회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보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제시문 [가]는 시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대인은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현재 시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모든 시대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와 비교해서 우열을 평가하기 보다는 각 시대가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는 오늘날 인간의 잠재 능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인 면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과거 세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한 세대에서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가 현재 시대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과거 시대와 비교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현재 시대는 과거 세대가 축적한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합치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다. (592자)

2015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인문·체능계)

논제 Ⅱ

제시문 [바]의 저자는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라다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가 걸어온 산업문화의 길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과 같은 물질적 ‘진보’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시문 [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숲을 훼손하는 사냥꾼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사냥꾼은 당장의 사냥감을 얻는데 급급해 숲의 먼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으며, 아예 걱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는 제시문 [바]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모습, 즉 물질적 ‘진보’를 유일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와 닮아 있다. 따라서 현재적 삶의 욕망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있는 사냥꾼의 삶의 태도는, 물질적 풍요 너머에서 미래를 향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저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연대하여,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회가 야기하는 몰인정한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공감과 연대에 바탕한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경쟁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가 추구하는 대안적 삶의 가능성과 통한다.

제시문 [마]는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이면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삼천포에서 웃고, 떠들고, 놀면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현대화된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웃 동네의 모습, 즉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와는 이질적이다. 소박한 이들의 일상은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와 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과 중심의 경쟁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즐기고 있는 제시문 [라]의 삶의 태도는, 성장과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며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189자)